

마르코 복음서 8장

사천 명을 먹이시다(마태 15,32-39)

- 1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 2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 3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 8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되었다.
- 9 사람들은 사천 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 10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 4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 5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6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 7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 1) 많은 군중이 예수님 곁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곧 군중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몰두해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충만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픈 군중이었다. 이런 군중을 가엾게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빵의 기적을 행하신다.
- 2) 군중 수와 비교해 빵 일곱 개는 보잘것없다. 하지만 일곱은 완전한 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리스계 교우들의 식탁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았던 일곱 사람을 시사 할 수도 있다.¹⁾ 또는 전통적으로 이교도들의 세계는 일흔 개 나라로

1) 사도 6,1-6 :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나뉘었다고 생각해 왔는데(루카 10,1 참조), 이 수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²⁾
3) 마태오 복음서 15,32-39 해설 참조.

바리사이드들이 표징을 요구하다(마태 16,1-4)

- 11 바리사이드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 12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 13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1) 바리사이드들의 태도는, 하느님께 당신의 권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그 옛날 광야 세대의 행동을 재연하는 것이다.³⁾
2) 마태오 복음서 16,1-4 해설 참조.

바리사이드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마태 16,5-12)

- 14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드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 16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 17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 18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 19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0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6쪽, 각주 4 참조.

3)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6쪽, 각주 8 참조.

민수 14,11 :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이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14,22 :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열 번 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 1)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근원을 가리키는 표상으로,⁴⁾ 라빠들에게는 인간의 악한 영향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누룩이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악의를 가리키기도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사명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 사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신다. 이러한 스승의 노력에 역행할 경우, 제자들도 그러한 악의를 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⁵⁾
- 2) 마태오 복음서 16,5-12 해설 참조.

벳사이다의 눈먼 이를 고치시다

- 22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 23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 24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5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 26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 1) 예수님의 이 기적은 다른 것과 달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예수님의 계몽자적인 권능,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는 예수님의 노력을 보여준다.
- 2) 소경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또 치유하신 뒤에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 이는 당신께서는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 3) 소경이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로 점차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점진성을 상징한다. 곧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눈이 열리고 신앙은 점차 깊어가는 것이다.

4) 1코린 5,6-8 :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니다.

5)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6-87쪽, 각주 10 참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마태 16,13-20; 루카 9,18-21)

-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0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마태오 복음서 16,13-20 해설 참조.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마태 16,21-23; 루카 9,22)

- 31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 3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 3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마태오 복음서 16,21-23 해설 참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마태 16,24-28; 루카 9,23-27)

-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37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 38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1)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곧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⁶⁾
- 2)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갔듯이, 제자들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이를 각오해야 한다.
- 3)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곧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 모습이다.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다.
- 4) 마태오 복음서 16,24-28 해설 참조.

6)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9쪽, 각주 29 참조.